

2013.05.12 (일)

30917 김지혜

날씨: 햇빛은 없었지만 공기는 덥아서 끈적끈적함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야자실에 가야지! 라고 자놓았던 전날 계획표는 눈을 뜨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벌써 두시라니... 침대에서 멍하게 기다다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왔다. 오늘은 민정이가 시험에 합격한 기념으로 산기로 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항상 지각하는 버릇 때문에 오늘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급장을 먹으러 갔는데 날씨가 후덥지근해 공기가 너무 답답했다. 맛있게 먹고있는데 누가 옆테이블에서 나를 불렀다. 중학교때 친구들이었다. 너무 반가웠는데 항상 놀자고 할 때 마다 빠졌는데 내가 다른 친구들아랑 놀고 있으니 친구들이 좀 췌진것 같았다. 민정이가 후식까지사줘서 맛있게 먹고 야자실까지 공부했다.

야자실에 가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항상 계획만 거창하게 짜놓고 하나도 못지키는것 같아서 속상했다. 계획에 어긋난 시간들은 무駄되어 썩는것 같다. 민정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맞았는데 나는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반생에게 되었다. 앞으로 잠은 좀 줄여야지!!